

김태윤 팀장 모두발언

-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님 후임으로서 위촉되어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깊은 책임감을 느낌
- 엄중한 국내외 상황에서 경제규제혁신의 핵심적인 과제는 「인플레이션 대응」과 「경제활력 제고」라고 생각함
 - 규제는 역진적인 숨은 세금이어서 물가상승을 촉발하고 서민들과 영세상공인들에게 고통을 안겨줌
 - 규제는 발목잡기와 과중한 부담으로 국민들의 새로운 도전을 좌절시키고 신산업창달을 저해함
- 경제 규제혁신TF가 향후 주력해야 할 과제는 「진입장벽 해소」, 「자율 존중과 리스크관리의 신중한 경계」, 「은폐규제 관리」, 「규제혁신행정 업그레이드」, 「규제혁신 벤치마킹 수립」 등임
 - 우리나라 규제시스템에 광범위하고 깊게 뿌리박혀있는 다양한 형태(조건, 자격, 행위의무 등)의 진입장벽을 해소·완화해야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자유와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음
 - 통제적인 규제로 얽매이지 않고, 국민들과 기업들의 자율을 존중하고 민관이 협의하며 단계단계 자발적으로 규율하고 모니터링하는 리스크관리, 즉 「신중한 경계(prudent vigilance)」 차원으로 접근해야 획기적이며 진정한 의미의 세계초격차 신산업 창출이 가능할 것임
 - 여러 가지 형태로 숨어있는 은폐규제(유사규제, 무등록규제, 우회규제 등)를 공식화하고 적절하게 관리해야 국민과 기업의 부담과 희생을 해소할 수 있음

- 혁신대상 규제들의 개선 과정과 절차(AI도입도 검토) 및 일정들을 체계적이고 책임성 있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규제혁신행정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규제혁신 효과가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체감되어야 함
- 규제혁신의 철학과 주안점 및 구체적인 방법론이 모든 부처에 파급되어서, 유사한 속성의 여러 다른 다양한 규제들을 혁신하는데 귀감과 근거가 되어 하나의 정부로서 하나의 규제혁신을 구현해야 함
- 향후 정부 및 다른 선진국에게도 귀감이 되는 지식, 정보, 입장 등이 여러 방향에서 결집되고 해법이 논의되는 「규제혁신플랫폼」의 선례가 되기를 기대함
- 민간위원들의 전문성과 경륜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식견과 대안개발 시도가 창발하고 있음
- 정부부처에서도 국장급 이상의 간부들이 민간위원들과 대화하고 서로 공감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나서는 시도를 통하여 상호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음
- 복수의 부처들의 중복적인 규제들이 중첩되어 있는 유사중복 규제(산업안전, 화평화관 등)에 대한 현장차원에서의 점검을 통하여 보다 통합적이며 쌍방향적인 규제혁신접근을 모색
- 향후에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 대한 적극적인 청취와 공감, 그리고 현장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제고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규제혁신플랫폼의 전범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